

삶이 어떠하냐 물으신다면

신윤식

삶이 어떠하냐
물으신다면
비루한 자
세상에 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 안겨주신
깊은 사랑에
불들려 사노라 말하리다.



삶이 어떠하냐
물으신다면
비루한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허물 덮어 주신
크신 은혜의
기쁨으로 사노라 말하리다.

삶이 어떠하냐
물으신다면
절망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의지하게 하는
하늘이 있어 사노라 말하리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다시 오시는 그 날
거두어 주시라 말하리다.

MATHETES

제23권

45

2015년 1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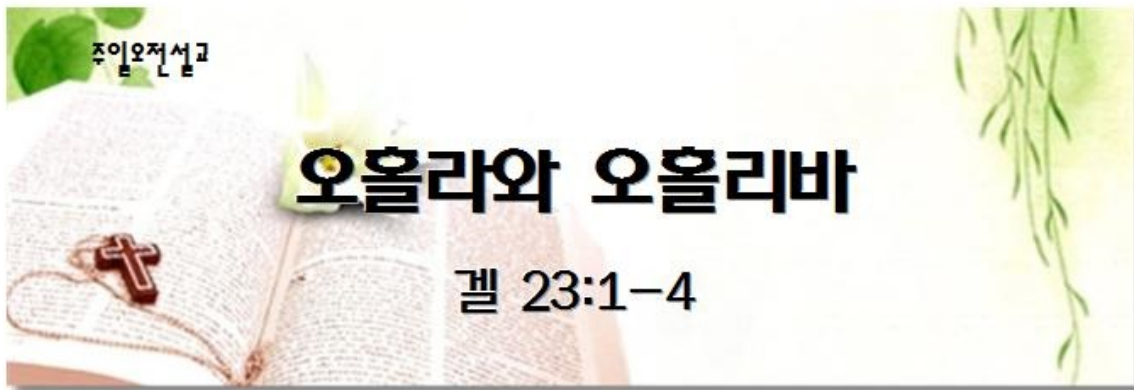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3323-9049 sys5806@hanmail.net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참된 신앙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우리가 자신이든 타인이든 참된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인간에게는 참된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할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참된 신앙의 기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한 바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힘쓰게 되고 그 기준에 조금씩 맞추어져 가는 것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이 목사가 교인에 대한 합당한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의 의미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참된 신앙인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참된 신앙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으로 자신이 음란한 창녀와 같

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서 참된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나 행함을 봤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음란한 창녀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자신이 음란한 창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위해 진심으로 필요한 유익이 되는 말은 **“나의 신앙은 모두 가식이고 위선이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이러한 말을 주고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부터 가식과 위선으로 뭉쳐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식과 위선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판단을 위해 남겨 놓으신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모두 가식이고 위선이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

우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는 남편을 두고 여러 남자와 행음하는 여인, 즉 음란한 창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을 내세워 말씀합니다. 음란한 창녀와 같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쉽게 보지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면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창녀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요 4:18)**라고 하시며 여인을 음란한 창녀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시고 그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내용만 골라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면해도 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부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음란한 창녀와 같은 더러움과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거룩한 자로 여기신 하

남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라 여겼지만 신자처럼 살지 못하고 음란한 창녀와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기에 참된 신자인 것처럼 여겼지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싶고 지금까지 행해 온 신자로서의 행위를 증거 삼아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내미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라며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을 반발과 아픔과 혼란으로 끌어갈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은 세계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언니 오홀라와 동생 오홀리바는 각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란하게 행한 존재였음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시킨 상징적 인물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홀라를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말하고 오홀리바를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것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아루만져졌나니”**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대로 말한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로 형성되어 있었을 뿐이고,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애굽에서 어렸을 때에 행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전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부터 이미 행해졌던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행음의 실체가 남과 북으로 분열됨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겨우 두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심으로 설립된 왕국이 그렇게 빨리 분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나 민족에게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강한 국가가 되게 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 행음했다면 애굽과 행음했다는 뜻인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기에 애굽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애굽에서 행음할 수 있었겠습니까?

5,6절을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홀라, 즉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웃 나라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여 연애하였는데, 그 이유는 앗수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백마 탄 왕자, 멋있는 남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누리고 있는 부요의 삶을 멋있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앗수르를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음하는 것으로 말삼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오홀리바의 눈에도 앗수르 사람이 멋있게 보였고 앗수르 사람을 연애했으므로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13절). 이러한 두 여인의 행음이 이미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앗수르를 멋있게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사모하는 행음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을 사모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민 11:4-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통을 겪던 것은 잊어버리고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며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비록 종의 신분으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이들을 본성을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멋있게 보였을 것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애굽에서의 행음이고 이 행음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애굽이나 앗수르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신분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된 것은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갓 태어나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상태에서 누구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비참한 물골이여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왕후의 신분까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크신 사랑만 사모하면 되었지만 부요를 누리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음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고만 행음한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보이는 모든 남자를 사모하였기에 음란한 창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과연 사모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거룩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 지루해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계속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요를 누리고 세상 일이 잘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사모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큰 예배당과 많은 수의 교인과 수십억 수백억의 재정을 가진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자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을 행한 창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건전하고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생각으로 여기겠지만 그 내면에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자기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음란을 행하는 창녀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혹여 이러한 말에 반발이 된다면 자신을 음란을 행하는 창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음란을 행하는 창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라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라바는 예루살렘이니라”고 말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라바가 하나님께 속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자녀를 낳았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이 맞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음란을 행하는 창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음란을 행하는 창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만 다른 점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말씀이 드러낸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와 사랑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잊은 채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모두 드러나고 내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 존재라는 것이 생생히 자각될 때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 주신 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오후설교

(10.25일 설교 : 믿음 37강)

믿음으로 믿음에 롬 1:16-17

2009년 11월에 믿음을 주제로 36강까지 설교하고 끝냈었는데 오늘부터 계속 이어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주제의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를 오해함으로써 신앙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현실을 많이 목도 할 수 있기에 믿음의 시각에서 성경의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롬 10:9-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고 말씀하는 대로 구원의 범위는 ‘누구든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실천하여 이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실천하여 이루어진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여러분과 무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 그 믿음이 특출한 수준이라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의 구절은 물론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현재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라는 구절을 자신과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구절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잘 못 이해하여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믿음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체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작금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과 인간에게 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인간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는 것은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비슷하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극과 극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인간에게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옳습니까? 인간에게 믿음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비록 선악과에서 믿음에 실패했다 해도 스스로를 독려하고 노력하여 믿음의 길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믿음을 스스로 가능케 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믿음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에는 인간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어 의로운 자로 여김 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말에 인간의 의의 행함, 실천은 개입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확고하고도 변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거룩한 자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를 믿게 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롬 3:21,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실패함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문자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후에 믿음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인간이 믿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받은 이후의 책임을 인간에게 요구하신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믿음을 받았으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그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혼란이 있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없고,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면 '신자가 믿음을 위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가?' 라는 의문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행함과 연결하여 이해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믿음을 위해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이루심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라는 불만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꺾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까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된 믿음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이것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자는 행함을 기준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세계에서는 행함을 비교하고 차별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어잡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11.11일 설교 75강)

아들 경쟁

장 30:1-8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알아 주고 이해해주며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옳은 것으로 인정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함께 하는 교회 내에 경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게 되면 은혜 또한 나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의 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더 낮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

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란 결국 탐심일 뿐인데 우리의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 라헬과 결혼한 뒤에 자식 문제가 발생합니다. 29: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

을 주시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게 하십니다. 레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낳은 첫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뜻의 르우벤으로 지은 것입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러한 자기 처지를 돌아보시고 야곱을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아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다시 둘째를 낳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둘다'라는 뜻의 시므온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셋째를 낳고 아들을 셋 낳았으니 야곱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합하다'라는 뜻의 '레위'라 짓습니다. 다시 또 넷째를 낳은 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찬양한다'는 뜻으로 유다라 짓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멈춥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들을 전혀 낳지 못합니다. 따라서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것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라헬이 자기야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한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야곱은 성을 내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을 것을 요구합니다. 빌하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라도 레아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6절)"**라며 그 이름을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단이라 짓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자기편으로 간주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의 몸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호소를 들어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습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또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자 이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며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은 넷이고 라헬은 자신의 소생은 없고 여종 빌하의 소생 둘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라헬이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라chel은 자신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합니다. 아마 레아가 출산이 멈춘 상태에서 자신의 뜻대로 여종 빌하가 아들을 계속 낳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으로 여기고 이겼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출산이 멈춘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아 역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레아는 실바가 낳은 아들을 ‘복되도다’ 하며 갖이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자신에게로 향해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13절)**라고 하면서 ‘기쁘다’는 뜻의 아셀로 이름 짓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행복한 자로 여기며 부러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다시 르우벤이 가져온 합환채를 라헬에게 주는 조건으로 야곱과 동침을 하고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18절)**고 하며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20절)**고 하며 스블론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되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면서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다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으로 요셉이라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어떻게든 레아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35장을 보면 결국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베냐민입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의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경쟁을 묵인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잇사갈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번에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소원을 들으셔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편이시고 누구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또한 레아와 라헬의 소원은 아들을 낳아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 탐심에 의한 것인데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자기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나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해서 하나님을 레아, 또는 라헬 편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소원은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심으로 탐욕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아들을 낳음으로 힘을 갖고자 하는 탐심,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분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무지함, 그 모든 것들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본문과 같은 탐심과 경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 주심으로 그 내면에 있는 탐심을 끌어내시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탐심이며 이기려고 하는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늘 내 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 된 모습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됨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무능함이 인정된 자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서 이긴 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뿐입니다. 그래서 늘 이긴 자는 하나님 한분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산대)

오늘의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회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습 1:6-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3장
 교 독 문 105(감사절1)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301장
 성경봉독 겔 23:1-4
 설 교 신윤식 목사

오홀리와 오홀리바 (52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25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성희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 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82장
 기 도 송재관 집사
 찬 송 314장
 성경봉독 고후 9:6-9
 설 교 신윤식 목사
믿음과 헌금 (믿음40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05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신미정 집사

수요일 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76강

은석소식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신 삼대절기 중의 하나인 수장절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의 전통일 뿐입니다. 수장절은 어린양의 화생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새 양식을 먹게 됨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신약의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화생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바쳐져야 할 참된 열매는 농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피로 주어진 영생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